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모와의 정서적 관계와 부모 부양 의식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Emotional Tie with their Parents  
and Attitudes toward Parent Caregiving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조윤주\*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이숙현

Dep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Doctorial Course : Cho, Yoon-Joo  
Dep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Professor : Lee, Sook-Hyun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variables which account for college students' attitudes toward parent caregiving. The subjects of this research were 204 students(male:98, female:106) who were currently enrolled at three coeducational universities and one women's university loc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The instruments used for this study were Attachment and Conflict Scale by Song(1986) and Im(1988), and Parent Caregiving Attitudes Scale by Shin(1993). The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Pearson's correlation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t turned out that a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 in attitudes toward parent caregiving exists. Female college students had more positive attitudes toward parent caregiving than male college students.

Second, the variables explaining college students' attitudes toward parent caregiving were the extent of attachment with their parents and the experience of cohabitation with their grandparents. The stronger male and female students had attachment with their parents, the more positive attitudes toward parent caregiving they had. In addition, male college students without an experience of cohabitation with their grandparents reported more positive attitudes toward parent caregiving.

-----  
▲주요어(Key Words) : 대학생(college students), 애착(attachment), 갈등(conflict), 부모 부양 의식(attitudes toward parent caregiving)

I. 서 론

최근의 통계 보고에 따르면 우리 나라 인구의 고령 속도는 예상보다 급속도로 진전되어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고 있는 반면 자녀 출산율은 30년 이래 최저 수준으로 한 가구당 출산 자녀수가 1.17명에 불과하다고 한다(통계청, 2004). 기본적인 출산율을 동반하지 않은 인간의 평균 수명 연장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을 수 있는데 그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노년 인구에 대한 부양 문제이다. 즉, 경제 활동 가능 인구는 감소하는 것에 비해 65세 이상의 인구

\* 주 저 자 : 조윤주 (E-mail : biju0501@hanmail.net)

는 증가함으로써 노인 일인에 대한 잠재 부양 지수(PSR= Potential Support Ratio)가 떨어지는 것으로 노인 가족들을 보살펴야 하는 젊은 층의 부담이 더욱 커진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부모가 연로해지면 자녀를 중심으로 가족이 부양을 담당하는 것이 사회 전반에 팽배한 사고였다. 이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단위인 가족에 속하게 되고 가족은 사회적 관계의 친밀성 면에서 다른 어떠한 관계보다 선행하는 일차적 집단으로서 모든 가족 구성원의 개인적 안정에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족의 기능은 특히 노년기에 더욱 중요성을 갖게 되어 노인은 가족 구성원과 지속적인 접촉을 통하여 사회·정서적인 지지를 받고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앞서 언급한 인구학적 변화 뿐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인 변화에 따라 변모하고 있다. 사회적인 변화로는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가족 구성원의 지리적인 이동성 증가와 전통적으로 부양을 담당해 온 여성의 역할 변화가 포함된다. 이는 가족 구조의 변화에서도 드러나 삼세대 이상 확대 가족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의 비율은 2000년 82.0%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통계청, 2004). 그리고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긴 여성의 평균 수명과 낮은 취업률로 인해 여성이 전적으로 부양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으나,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확대되면서 여성에게 예전과 동등한 수준의 부양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젊은이들의 가치관의 변화로 대표되는 문화적인 변화를 들 수 있다. 서구의 물질 문명과 개인주의 사조로 인하여 종래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었던 효의 전통이 퇴색하고 있으며, 부모 부양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과 혜택의 교환이론적 관점에서 취사선택하는 입장도 대두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변화를 볼 때, 가족을 중심으로 한 노인의 부양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반론도 계속되고 있다. 즉, 동서양을 막론하고 부모 부양에 대한 잘못된 신화 중의 하나는 가족에 의한 부양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것인데(Sussman, 1976; Shanah, 1979a, 재인용), 예상과는 달리 여전히 가족 구성원이 노부모에게 폭넓은 지원을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근원이 되고 있다(Uhlenberg, 1996). Ward와 Spitze(1992)는 배우자 사망 이후 자녀가 노부모의 부양자로서 가장 우선시 된다고 하였으며, Brody(1985)는 부모 부양이 자녀의 발달 과업 중 하나의 규범적인 과정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다세대 가족(multigenerational family)이 증가하여 성인 초기 자녀 또는 손자녀가 이전 세대보다 더 오랫동안, 더 많이 주부양자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Dellmann-Jenkins, Blankemeyer, & Pinkard, 2000). 또한 고령화 속도는 매우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나, 공적 부양 체계는 이

에 미치지 못해 일정 부분을 가족 중심의 사적 부양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상기한 바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부모 부양에 대해 상반된 주장과 예측이 계속되어 온 시점에서 부모 부양에 대한 젊은이들의 의식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한 일로 생각된다.

부모 부양이 부양 의식과 부양 행동으로 구성된다고 가정하면 부양 행동은 부양 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구체화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부양 의식은 인간의 내면화된 가치관과 규범 의식이 인간의 행동을 좌우하여 부양 행동을 예측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198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온 주제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행되어 온 부양 의식에 대한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 번째는 부양 의식에 대한 개념이 연구자에 따라 상이하어 크게 규범적 차원(Sung, 1992, 1995)에서 접근한 연구와 계획적 차원에서 접근한 연구(신수진, 1993; 이희자·김영미, 1996)로 구분되는 등 개념이 혼재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부양 의식에 관한 연구들이 실증적인 연구이기보다는 탐색적 조사 수준이라는 점이다.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에 대한 태도나 부양에 대한 책임감을 살펴보기(이은경, 1999; 임인혜, 1987; 허훈, 1988; Cicirelli, 2000), 성별·출생 순위·결혼 상태 등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위주로 부양 의식과의 관계를 파악한 것이 다수를 차지한다(임춘희, 1988; Brody, Johnsen, Fulcomer, & Lang, 1983; Spitze & Logan, 1990).

세 번째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외에 주로 사용되는 세대간 유대를 중심으로 수행한 연구들은 현재 부양 중인 상태를 바탕으로 한 결과 중심이라는 것이다. 즉, 정서적 관계와 의무감의 정도에 따라 현재의 부양 경향이 다르다(송현애, 1986; 홍달아기, 1998)는 것을 설명할 뿐 정서적 유대감이 장래의 부양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수행되어 온 부양 의식 연구는 부양 의식에 대한 개념 정의에 일관성이 없고, 성인 자녀의 부양 의식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이 부족하여 이를 규정하는 여러 변인에 대해서 명확하고 포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인구학적 변인 위주의 조사 연구 수준에 그칠 수 밖에 없었으며 현상을 기술하거나 설명을 위주로 하여 예측의 기능은 부족한 면이 있었다.

이러한 제한점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성인 자녀의 부모 부양 의식에 대한 재개념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또한 Hareven(1995)이 성인 자녀의 부모 부양에 대한 관여는 자녀의 생애 초반기 경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제안한 것을 받아들여, 부모-자녀간에 형성된 정서적·애정적 유대를 고려한 독립 변인을 포함하여 부양 의식을 설명할 것이며, 세부적으로 부양 의식을 구성하는 하위 범주와 독립 변인간 관계를 알아보려 한다. 이외에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는 현재에도 계속 증가 추세이며 앞으로는 대다수의 여성이 결혼 여부에 상관없이 직업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전망하에 부모 부양에 대한 남성의 참여를 예측하는 관점도 필요할 것으로 사려되므로 남녀 대학생의 차이 정도를 파악하는 과정도 포함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주부양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성인 초기의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 부양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청년 세대의 향후 부양 행동을 예측하고, 노인 부양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상의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부모 부양 의식은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둘째, 대학생의 부모 부양 의식은 이들이 지각한 부모와의 애착 정도 및 갈등 정도와 관계가 있는가?

또한 대학생의 부모 부양 의식을 구성하는 하위 범주(경제적 지원, 정서적 지원, 서비스적 지원)와 부모와의 애착 정도 및 갈등 정도의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사회인구학적 변인, 부모와의 애착 정도와 갈등 정도 중 부모 부양 의식을 설명하는 변인은 무엇인가?

## II. 이론적 배경

### 1. 부모 부양 의식

#### 1) 부모 부양의 의미

부양을 지칭하는 단어는 돌봄(caregiving), 도움 행위(helping behavior), 원조 또는 보조(assistance 또는 aid) 등 다양할 뿐 아니라 정의도 연구자에 따라 상이하다. Solde와 Myllyluoma(1983)는 부양을 '최소한 명 이상의 65세 이후의 노인과 같은 집에 거주하며 일상 활동이나 이동 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Uhlenberg(1996)는 '자력으로 기본적인 활동이나 도구적인 일상 생활 능력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도움'으로 정의하였다. 그런데 최근에는 더욱 포괄적인 의미에서 부양을 '질환이나 장애로 인해 스스로를 돌보기 어려운 가족 및 친지에게 제공하는 비일상적인 경제적·정서적·도구적 지원'으로 정의하기도 한다(윤성은, 2002).

일반적으로 노인의 부양은 경제적 부양, 정신적·정서적 부양, 신체적·서비스적 부양으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부양은 금전이나 물질을 제공하는 부양을 의미하며, 정신적·정서적 부양은 노인의 고독감과 불안을 해소하고 인격적·정신적 충격을 제공하는 부양을 말한다. 신체적·서비스적 부양은 노인의 신체적 조건에 따라 취사, 목욕 등의 보살핌과 시중, 병간호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김태현, 1982).

또한 부양의 주체에 따라 공적 부양과 사적 부양으로 구분되는데, 공적 부양은 주체가 공공 기관이나 사회 복지 등이 되는 사회적 수준의 부양을 말하며, 사적 부양은 가족·친족·이웃 등이 주체가 되는 개인적 수준의 부양을 의미한다(Cantor,

1975).

실질적인 부양 행동의 선행 개념으로서 성인 자녀의 부모 부양 의식에 대해 서병숙(1986)은 '동거 의식', '부양 의식', '몸시중 의식'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신수진(1993)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자원이 열악한 상태에 있는 노부모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성인 자녀의 의무(Seelbach, 1978)에 관련된 생각으로서 성인 자녀의 사고를 지배하는 규범적 차원과 실제 부양 행동을 위한 계획적 차원의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모 부양 의식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동·별거에 관계없이 부모가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처하게 될 경우, 정기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행동에 대한 계획이나 의지'라 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 2) 부모 부양 의식에 관한 선행 연구

부양 의식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을 위주로 조사하거나 효 의식을 비롯한 가족주의적 가치관과의 관계를 토대로 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부양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성과 연령, 출생 순위, 결혼 상태 등이 주로 언급된다(이은경, 1999; 이희자·김영미, 1996; 임인혜, 1987; 임춘희, 1988; 허훈, 1988).

이희자와 김영미(1996)는 남녀 고등학생의 부모 부양 의식을 살펴본 결과, 부모에 대한 부양 의식이 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노인 부양에 드는 비용에 대한 질문에 남자 고등학생은 '자녀가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고, 여자 고등학생은 '본인이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 소재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부모가 원하는 자녀'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여러 선행 연구에서 일반인들의 우려와는 달리 우리 나라 젊은이의 부양 의식은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나, 연령이 낮을수록 효행 의지를 덜 중요시하고, 부모에 대한 책임감과 부모를 위한 희생 정신이 약한 경향성을 보여 효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경신, 1998; 임인혜, 1987; 허훈, 1988).

또한 관습적으로나 통념적으로 부모 부양의 일차적 책임을 지어 온 장남의 노부모 동거 부양 의식에 대한 연구(임춘희, 1988)에서는 부모의 자립 능력이 상실되거나 일정 연령에 다다르면 동거 부양을 하겠다는 장남이 많았다. 장남은 부모와 동거하면서 경제적으로 보조하는 동거보조 부양유형을 선호한 반면, 장남의 부인은 부모와 따로 살면서 경제적으로 보조하는 별거보조 부양유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부모 부양 의식을 이론적 관점에서 연구하려는 시도로서 신수진(1993)과 한은주·최배영(1997)의 연구 등이 있다.

한편 Sung(1992, 1995)은 효 의식을 우리 나라의 전통적이고 이상적이며 보편적인 부양 의식으로 규정하여 효 의식의 변화를 살펴보고, 부모 부양의 동기를 부모에 대한 존경, 효행의 의무감, 가족과의 조화, 보은, 효의 희생 등 다섯 가지로 구

분하여 이는 노부모와 성인 자녀간 부양 관계를 돈독히 하는 한국인들의 희망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Cicirelli(2000)는 부양 책임감의 인식으로부터 발달되는 효행(filial role)의 단계를 설명하였는데, 자녀의 행동을 관심, 권유, 실행으로 세분화하였다. 이와 같이 부양 의식에 관한 연구들은 미래 부양 행동을 위한 계획 차원에서보다는 주로 규범적인 차원에서 이를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부모-자녀의 정서적 관계

일반적으로 부모-자녀 관계에 대해 긍정적인 정서 관계를 표현하는 개념으로는 애착(attachment), 결속도(solidarity), 친밀감(intimacy 혹은 emotional closeness), 애정(affection) 등이 언급되며, 부정적인 정서 관계를 언급할 때는 갈등(conflict), 긴장(strain), 스트레스(stress) 등의 개념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관계의 하위 차원으로 애착과 갈등을 선택하였다.

### 1) 부모와의 애착

애착 이론은 영아-어머니 관계에서 유래되었지만 생애 후기 관계에도 적용되는 이론이다. 애착은 Bowlby(1969)가 처음 제안한 개념으로 '특정한 타인과 강한 애정적 유대를 맺으려는 인간의 성향'으로 정의된다. 이는 영아가 어머니와 형성한 유대(bond) 또는 결속(tie)인 동시에, 어머니와의 근접성과 접촉의 경향에서 추론되는 개인의 내적 상태이다. Bowlby(1969)는 애착과 애착 행동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에 걸쳐 나타나며, 특히 자녀가 곤경에 처하거나 아프거나 위험 상황일 때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반면 Weiss(1982)는 자녀가 성장하면서 자율성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고 청소년기에서 성인기에 걸쳐 부모에 대한 애착은 서서히 약화된다고 하였다.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애착의 계속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영아기에 형성된 근접성 추구 모델로부터 애착과 애착 행동의 변화가 필연적인 것으로, 이에 대해 Cicirelli(1983)는 성인이 되어서 부모와의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지고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애착이 유지되는 것은 성인기에 상징적 애착 체계가 출현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상징적 애착(symbolic attachment)의 개념은 내적 실행 모델(internal working model)에서 유래된 것으로, 내적 실행 모델은 자신 뿐 아니라 외부 세계와 중요한 인물에 대한 표상을 발달시키는 것이며, 개인에게 행동의 방향과 경험의 평가에 대한 체계적인 규칙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애착 대상에 대한 내적 실행 모델은 아동 초기동안 형성되어 향후 대인 관계에 있어 기초가 된다.

보호적 행동은 애착 행동과는 다소 다르지만 애착 행동과 서로 보완적이어서 애착 대상을 두려움의 존재로부터 보호하는데 관심을 둔다. 성인기에 애착 대상이 곤경에 처하면 부모의 생존과 정서적 유대를 보존하기 위해 도움과 부양을 제공하는데 주로 보호적 행동에 의해 이루어진다. 부모와 자녀가 정서적으로

개방되고 서로를 존중하는 의사 소통을 하는 것이 애착 관계와 자율성의 만족스러운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어 정서적 친밀감은 성인기에도 계속되지만, 반면 부모의 질병이나 노년의 의존성 증가 상황에서는 감소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Bretherton, 1995).

애착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알려진 사실이 없으나(Thompson & Lamb, 1986), 애착은 생애 전반에 걸쳐 부모-자녀 관계를 유지하는 기제이며, 애착 행동과 보호적 행동의 개념은 부모 부양에 대한 동기로 볼 수 있다.

### 2) 부모와의 갈등

본 연구에서 정서적 관계를 애착과 함께 갈등을 중심으로 하여 접근하려는 것은 가족과 같은 일차 집단내에서 관계의 친밀도는 갈등의 정도와 결부된다는 Coser(1956)의 견해와 친밀한 관계일수록 정반대의 감정을 동시에 갖는 양면성을 보이기 쉽다는 Freud의 관점을 따른 것이다(Coser, 1956; 임춘희, 1988, 재인용). 갈등이란 '두 사람 이상의 개인이 각자 자신이 원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이 상반된다고 믿는 태도나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서로간에 마찰이 생겨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 및 정서적인 대치 상태에 있는 상황'(최정혜, 1992)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세대간 갈등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인 교환 이론은 전 생애 주기에 걸쳐 가족 관계를 설명하는데 많이 사용되며, 특히 노년학 분야에서는 1970년대 중반부터 관심을 받아 온 이론이다(Suitor & Pillemer, 1991). 교환 이론은 상호작용에 있어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보상을 최대화하기 위한 개인의 시도를 위주로 설명되는데 이를 노부모-성인 자녀 관계에 적용하면 교환의 불균형과 세대간 불평등의 지각이 가족의 부조화를 야기하므로 성인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존성이 증가하게 되면 세대간에 긍정적인 감정이 감소하게 된다. 정서적 자원이 계속적으로 고갈되면 갈등적인 상태가 되며, 결과적으로는 최악의 관계가 될 수도 있다(Bengtson, 1996; Clarke, Preston, Raskin, & Bengtson, 1999, 재인용). 갈등은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안녕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성인 자녀와 부모가 장기간 같이 살다 보면 대인간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심리적인 긴장이 자주 언급되며, 이 때 형성된 갈등으로 인해 부양에 참여할 의지가 희석되거나 부모에게 제공하는 지원의 빈도나 지속성이 제한받을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가족은 긴장과 불일치, 갈등을 인정하는 동시에 높은 수준의 세대간 결속도를 보고하는데 이는 애정과 접촉, 상호 지원을 의미하는 것이다(Silverstein, Parrott, & Bengtson, 1995). 즉, 가족은 전 생애에 걸쳐 결속도와 갈등간의 균형과 불균형의 양면성을 가진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3) 부모와의 정서적 관계와 부모 부양

Shanas(1979b)는 노부모-성인 자녀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가

장 중요한 요인은 이들간의 정서적 유대라고 주장하였다. 애착이라는 정서적 관계를 매개로 하여 부모 부양을 살펴본 연구들의 공통된 결과는 애착의 감정은 물리적인 거리에 상관없이 성인기에도 유지될 수 있으며(Pruchno, Peters, Kleban, & Burant, 1994), 이는 부양 행동과 정적 상관관이 있어서 부모와의 애착이 강할수록 현재 자녀가 부양 행동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향후의 부양 행동과도 연관된다는 것이다(송현애, 1986; 유계숙, 1998; Cicirelli, 1983; Moss, Moss, & Moles, 1985).

또한 부모-자녀 관계는 긍정적 감정을 느끼는 동시에 부정적 감정도 혼재한 관계(Moss, Moss, & Moles, 1985)여서 갈등 상황도 많이 유발되며, 사소한 생활 습관 외에도 특히 호혜적인 교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더 많이 갈등이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Adams, 1968; Clarke, Preston, Raskin, & Bengtson, 1999, 재인용). 분거한 도시 장남 부부의 부양 의식을 연구한 임춘희(1988)는 의무감보다는 애착이나 갈등과 같은 주관적인 유대 관계가 부양 의식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애착) 및 부정적인 관계(갈등)가 현재의 부양 행동 및 미래의 부양 참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자녀간의 상호 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애착과 갈등의 정도를 조사하여 이러한 요인이 부양 의식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수도권과 천안 지역에 소재한 남녀 공학대학교 세 곳과 여자 대학교 한 곳에 재학중인 남녀 대학생 204명(남: 98명, 여: 106명)으로 부모님 두 분 중 적어도 한 분이 이상이 생존해 있는 응답자를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이들의 연령은 만 18세에서 31세까지로 평균 연령은 남학생의 경우 22.0세, 여학생의 경우 20.8세였다. 출생 순위는 장남 60.2%, 장녀 51.9%였으며, 차남 36.7%, 차녀 44.3%, 외동아들 3.1%, 외동딸 3.8%였다. 연구 대상자의 가족 총 월소득을 살펴보면 남녀 학생 모두 '201만원 이상-400만원 이하'인 경우가 가장 많아, 각각 35.7%, 34.9%를 차지하였다. 부모 두 분이 모두 생존해 있는 경우가 94.6%로 대부분이었으며, 현재 부모와 함께 사는 남학생은 56.1%, 여학생은 60.4%였다.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부모를 더 자주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남학생 50.0%와 여학생 49.5%가 동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연구 대상자 아버지의 연령은 남학생의 경우 만 42세에서 66세까지로 평균 51.7세였으며, 여학생의 경우 만 42세에서 66세까지로 평균 51.0세였다. 어머니의 연령은 남학생의 경우 만 40세에서 61세까지로 평균 48.6세였으며, 여학생의 경우 어머니의

연령은 만 40세에서 60세까지로 평균 47.8세였다.

#### 2. 연구 도구

##### 1) 부모와의 애착 정도

부모와의 애착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송현애(1986)가 사용한 2개 문항과 임춘희(1988)가 사용한 13개 문항을 합하여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친밀감, 존경, 모방, 동일시, 애정, 대화 욕구, 심리적 의존, 이해, 신뢰 등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15점에서 7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 정도가 강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Cronbach  $\alpha$ 는 .86이었다.

##### 2) 부모와의 갈등 정도

부모와의 갈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송현애(1986)가 사용한 5개 문항과 임춘희(1988)가 사용한 10개 문항을 합하여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관계의 소원함, 의견 대립, 예상되는 갈등, 종교적 갈등, 성격 문제, 지나친 기대나 간섭 등이 주된 내용이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15점에서 7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갈등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Cronbach  $\alpha$ 는 .89였다.

##### 3) 부모 부양 의식

신수진(1993)이 사용한 22문항 중 연구자가 본 연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1개 문항을 제외, 최종적으로 21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제외된 문항은 '구김이 많이 가는 의복은 다려 드리고 더러워진 속옷이나 의복은 자주 빨아드릴 것이다'였는데, 이 문항은 정형화된 성역할을 반영하는 정도가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구성 내용은 경제적 부양과 관련된 7개 문항, 정서적 부양과 관련된 8개 문항, 서비스적 부양과 관련된 6개 문항으로 분류된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21점에서 10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양 의식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Cronbach  $\alpha$ 는 .94였다.

#### 3. 자료 수집 절차

응답자의 문항 이해와 응답상의 어려움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2년 2월 2일부터 2월 4일에 걸쳐 임의로 선정한 대학생 10명에게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조사는 2002년 2월 18일부터 3월 23일에 걸쳐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자가 해당 대학을 방문하여 강의가 끝난 후 대학생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배포한 경우는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으며, 중간 회

수를 부탁한 경우는 일주일 뒤에 회수하였다. 배포한 총 250부의 설문지 중 227부가 수거되었으며, 응답 내용이 부실한 23부를 제외한 204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4. 자료 분석

연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 편차,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성에 따른 부모 부양 의식의 차이를 보고자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부모와의 애착 정도 및 갈등 정도와 부모 부양 의식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부모 부양 의식의 하위 범주와 부모와의 애착 정도 및 갈등 정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Pearson의 적률 상관 계수를 구하였다. 또한 사회인구학적 변인, 애착 정도, 갈등 정도 중 부모 부양 의식을 설명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자료 분석을 위해서 SPSS WIN(11.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성에 따른 부모 부양 의식의 차이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대학생의 부모 부양 의식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향후 부모 부양의 책임 소재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았다. '아들과 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44.1%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능력있는 자녀' 30.4%, '장남' 12.3% 순이었다. 이들 응답을 합하면 '자녀가 부양해야 한다'는 응답이 총 95.1%에 이르며, '양로원 등 사회복지 기관'이라고 응답한 사례는 한 명도 없어서, 가족 부양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 대학생은 '아들과 딸' (33.7%), '장남' (22.5%)의 순이었고, 여자 대학생은 '아들과 딸' (53.8%), '능력있는 자녀' (37.7%)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첫 번째 연구 문제인 성에 따른 부모 부양 의식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아래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성에 따른 부모 부양 의식

| (N=204)  |                   |         |                    |         |
|----------|-------------------|---------|--------------------|---------|
| 변 인      | 남자(n=98)<br>M(SD) |         | 여자(n=106)<br>M(SD) | t       |
| 부모 부양 의식 | 83.15             | (10.50) | 87.43 (10.09)      | -2.87** |
| 경제적 지원   | 29.60             | (6.72)  | 30.78 (4.13)       | -1.50   |
| 정서적 지원   | 30.26             | (4.81)  | 32.10 (7.00)       | -2.16*  |
| 서비스적 지원  | 23.85             | (3.20)  | 25.67 (5.34)       | -2.88** |

\* p<.05 \*\* p<.01

<표 1>에 의하면 남자 대학생과 여자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부양 의식은 유의한 차이를 보여( $t=-2.87, p<.01$ ), 여자 대학생 ( $M=87.43$ )이 남자 대학생( $M=83.15$ )보다 부모 부양 의식이 더 높았다. 가능한 점수 범위(21점-105점)를 고려하면 남녀 대학생 모두 중간 점수(63점) 이상의 비교적 높은 부모 부양 의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위 범주별 비교시 모든 범주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경제적 지원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모든 문항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특히 남녀간 차이가 컸던 문항은 '부모님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어렵더라도 자주 시간을 내어 말동무 해 드릴 것이다'라는 문항이었다(남:  $M=3.92$ ; 여:  $M=4.25$ ).

2. 부모와의 애착 · 갈등 정도와 부모 부양 의식과의 관계

두 번째 연구 문제인 부모와의 애착 · 갈등 정도와 부모 부양 의식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전에, 성에 따른 애착 · 갈등 정도의 차이를 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성에 따른 부모와의 애착 · 갈등 정도

| (N=204) |                   |        |                    |        |         |
|---------|-------------------|--------|--------------------|--------|---------|
| 변 인     | 남자(n=98)<br>M(SD) |        | 여자(n=106)<br>M(SD) |        | t       |
| 애착 정도   | 54.38             | (8.81) | 58.43              | (9.21) | -3.09** |
| 갈등 정도   | 37.86             | (9.19) | 35.09              | (9.18) | 2.06*   |

\* p<.05 \*\* p<.01

성에 따른 애착 정도는 유의한 차이( $t=-3.09, p<.01$ )를 보여서, 여자 대학생( $M=58.43$ )이 남자 대학생( $M=54.38$ )보다 부모와의 애착이 더 강했다. 또한 성에 따른 갈등 정도도 유의한 차이( $t=2.06, p<.05$ )를 보여, 남자 대학생( $M=37.86$ )이 여자 대학생( $M=35.09$ )보다 부모와의 갈등이 더 많았다.

부모와의 애착 · 갈등 정도와 부모 부양 의식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 상관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 부모와의 애착 · 갈등 정도와 부모 부양 의식과의 관계 (N=204)

| 변 인        | 부모 부양 의식 |           |
|------------|----------|-----------|
|            | 남자(n=98) | 여자(n=106) |
| 부모와의 애착 정도 | .608**   | .443**    |
| 부모와의 갈등 정도 | -.523**  | -.368**   |

\*\* p<.01

남녀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와의 애착 정도와 부모 부양 의식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남자 대학생( $r=.608, p<.01$ ), 여자 대학생( $r=.443, p<.01$ ) 모두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남녀 대학생 모두 부모와 애착이 강할수록 부모 부양 의식이 높았다.

다음으로 남녀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와의 갈등 정도와 부모 부양 의식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남자 대학생( $r=-.523, p<.01$ ), 여자 대학생( $r=-.368, p<.01$ ) 모두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남녀 대학생 모두 부모와 갈등이 많을수록 부모 부양 의식이 낮았다.

또한 부양 의식을 구성하는 하위 범주, 즉, 경제적 지원, 정서적 지원, 서비스적 지원별 부모와의 애착 정도 및 갈등 정도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 상관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남자 대학생의 경우는 부모와의 애착 정도와 부양 의식의 하위 범주 중 경제적 지원( $r=.321, p<.01$ )과 정서적 지원( $r=.685, p<.001$ ), 서비스적 지원( $r=.566, p<.001$ ) 모두에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부모와의 애착이 강할수록 하위 범주별 지원을 많이 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 중에서도 정서적 지원이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t=35.32, p<.001$ ). 부모와의 갈등 정도와 부양 의식의 하위 범주 중 경제적 지원( $r=-.427, p<.001$ ), 정서적 지원( $r=-.506, p<.001$ ), 서비스적 지원( $r=-.433, p<.001$ ) 모두에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부모와의 갈등이 많을수록 하위 범주별 지원도 적게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 중에서도 정서적 지원이 가장 작았다( $t=6.03, p<.001$ ).

여자 대학생의 경우는 부모와의 애착 정도와 부양 의식의 하위 범주 중 경제적 지원과 서비스적 지원과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정서적 지원( $r=.308, p<.01$ )만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부모와의 애착이 강할수록 정서적 지원을 많이 할 것이라고 하였다( $t=25.83, p<.001$ ). 또한 부모와의 갈등 정도와 부양 의식의 하위 범주 중 경제적 지원( $r=-.214, p<.05$ ), 정서적 지원( $r=-.208, p<.05$ )은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서비스적 지원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즉, 부모와의 갈등이 많을수록 하위 범주별 지원은 적게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 중에서 경제적 지원이 더 적었다( $t=3.72, p<.001$ ).

<표 4> 애착 정도 및 갈등 정도와 부양 의식의 하위 범주 간 관계 (N=204)

| 변인      | 남자(n=98) |          | 여자(n=106) |        |
|---------|----------|----------|-----------|--------|
|         | 애착 정도    | 갈등 정도    | 애착 정도     | 갈등 정도  |
| 경제적 지원  | .321**   | -.427*** | .158      | -.214* |
| 정서적 지원  | .685***  | -.506*** | .308**    | -.208* |
| 서비스적 지원 | .566***  | -.433*** | .067      | -.066  |

\*  $p<.05$  \*\*  $p<.01$  \*\*\*  $p<.001$

### 3. 부모 부양 의식을 설명하는 변인

부모 부양 의식을 설명하는 변인을 파악하고자 단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 변인으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출생 순위, 부모 동거 여부, 조부모 동거 경험 여부를 포함시켰는데, 이러한 변인 외에 다른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종속 변인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시 제외하였다. 또한 독립 변인 부모와의 애착 정도와 갈등 정도간 다중 공선성을 고려하여 회귀 분석에서 유의한 설명력을 보인 부모와의 애착 정도만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투입한 독립 변인간의 다중 공선성을 점검하기 위해 변인간 상호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부록 1>과 같다. 남학생과 여학생을 따로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5>와 <표 5-1>, <표 6>과 <표 6-1>과 같다.

<표 5> 부모 부양 의식에 대한 단계적 중다회귀 분석 결과 (남자 대학생)

| (N=85)    |        |                |                       |          |
|-----------|--------|----------------|-----------------------|----------|
| 변인        | Beta   | R <sup>2</sup> | R <sup>2</sup> change | F        |
| 애착 정도     | .608** | .369           | .369                  | 51.57*** |
| 조부모 동거 경험 | -.147* | .407           | .038                  | 34.02*** |

\*  $p<.05$  \*\*  $p<.01$  \*\*\*  $p<.001$

<표 5>는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단계적 중다회귀 분석 결과인데, 부모 부양 의식에 대해 유의한 설명력을 가진 변인은 부모와의 애착 정도와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으로 나타났다. 남자 대학생이 부모와의 애착이 강할수록, 조부모와 동거한 경험이 없는 경우, 부모 부양 의식이 높았다. 이 변인들은 남자 대학생들의 부모 부양 의식의 40.7%를 설명하였다.

아래 <표 5-1>은 부양 의식의 하위 범주에 대한 단계적 중다회귀 분석 결과로 모든 범주에서 부모와의 애착 정도가 유의한 설명 변인이었고, 이 중 정서적 범주에서 조부모 동거 경험이 유의한 설명력을 보였다.

<표 5-1> 부모 부양 의식의 하위 범주에 대한 단계적 중다회귀 분석 결과(남자 대학생)

| (N=85) |         |       |                |                       |          |
|--------|---------|-------|----------------|-----------------------|----------|
| 하위범주   | 변인      | Beta  | R <sup>2</sup> | R <sup>2</sup> change | F        |
| 경제적    | 애착정도    | .321  | .103           | .103                  | 10.49**  |
|        | 조부모동거경험 | -.166 | .496           | .026                  | 43.71*** |
| 정서적    | 애착정도    | .727  | .470           | .470                  | 79.74*** |
| 서비스적   | 애착정도    | .566  | .321           | .321                  | 42.01*** |

\*\*  $p<.01$  \*\*\*  $p<.001$

<표 6>은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단계적 중다회귀 분석 결과인데, 부모 부양 의식에 대해 유의한 설명력을 가진 변인은 부모와의 애착 정도로 나타났다. 여자 대학생이 부모와의 애착이 강할수록, 부모 부양 의식이 높았다. 이 변인은 여자 대학생들의 부모 부양 의식의 20.8%를 설명하였다.

<표 6> 부모 부양 의식에 대한 단계적 중다회귀 분석 결과 (여자 대학생)

| (N=78) |        |                |                       |          |
|--------|--------|----------------|-----------------------|----------|
| 변 인    | Beta   | R <sup>2</sup> | R <sup>2</sup> change | F        |
| 애착 정도  | .444** | .208           | .208                  | 20.41*** |

\*\*  $p < .01$  \*\*\*  $p < .001$

<표 6-1> 부모 부양 의식의 하위 범주에 대한 단계적 중다 회귀 분석 결과(여자 대학생)

| (N=78) |      |      |                |                       |          |
|--------|------|------|----------------|-----------------------|----------|
| 하위범주   | 변 인  | Beta | R <sup>2</sup> | R <sup>2</sup> change | F        |
| 경제적    | 애착정도 | .215 | .046           | .046                  | 3.97*    |
| 정서적    | 애착정도 | .356 | .214           | .214                  | 12.30*** |
| 서비스적   | 애착정도 | .027 | .011           | .011                  | 1.13     |

\*  $p < .05$  \*\*\*  $p < .001$

<표 6-1>은 부양 의식의 하위 범주에 대한 단계적 중다회귀 분석 결과로, 경제적, 정서적 범주에서 부모와의 애착 정도가 유의한 설명력을 가진 변인이었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부모 부양 의식을 설명하는 변인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 1. 성에 따른 부모 부양 의식의 차이

남녀 대학생 모두 비교적 높은 수준의 부모 부양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모 부양 의식이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여자 대학생( $M=87.43$ )의 부모 부양 의식이 남자 대학생( $M=83.15$ ) 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범주별 비교시에도 모든 범주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다. 이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인혜(1987)의 연구에서 여학생의 부양 의식이 남학생보다 높았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다음의 세 가지 이유로 설명 가능하다.

첫째, 여자 대학생들의 높은 부모 부양 의식은 전통적으로 여성이 주부양자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사회화되었기 때문이다. Chodorow(1989)는 이를 '성-역할 사회화'(gender-role socialization)라 하여 남성에게는 자율성, 도구적 행동을 강조하며, 여성에게는 대인 관계에 있어서 민감성, 양육적 행동 등을 강조하는 사회화 과정이 아동기를 거쳐 내면화되며, 문화적 규범에 의해 계속적으로 강화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여성은 성장하면서 자신의 할머니나 어머니가 배우자나 부모를 부양하는 모습을 학습하고 이러한 상황에 자연스럽게 동화되어 부양에 대한 태도와 수용에 있어서 남성보다 거부감이 적을 수 있다.

둘째, 남성들은 부양에 대한 책임감은 공감하나 실제적인 부양 행동은 하지 않고 주변인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부양 활동은 주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대인 수발(hands-on care)이 위주이므로, 상대적으로 남성이 참여할 부분은 제한되어 있다. 또 주부양자로서의 남성의 참여는 낮고 여자 형제가 없을 경우 등 부득이한 상황에서만 개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Horowitz, 1985). 남성이 부양에 관여한다 하더라도 일상적인 부양은 남성 본인보다는 배우자 즉, 며느리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남성은 자신을 이차 부양자로서 인식하게 되고 부양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할 수 있으므로 부모 부양 의식도 낮은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부모 부양 의식이 여자 대학생들에게서 더 높았던 것은 본 연구에서의 부모 부양 의식이 원부모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도출한 결과이기 때문일 수 있다. 딸이 아들보다 부모에 대해 더욱 밀접한 정서적 유대를 발달시킨다는 연구(Horowitz, 1985)를 볼 때 이러한 결과는 당연한 현상일 수 있다. 반면, 여학생으로 하여금 시부모를 염두에 두고 응답하게 하였을 경우 이와는 다른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임춘희(1988)의 연구에 따르면 분거한 장남 부부를 대상으로 부양 의식 유형을 조사한 결과, 장남인 남편은 함께 살면서 경제적으로도 보조하는 형태를 가장 많이 선호했다. 반면, 부인의 경우 따로 살면서 경제적으로 보조하는 유형을 더 많이 선택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즉, 혈연으로 인한 부모를 부양하는 것인지 또는 결혼으로 인한 부모를 부양하는지에 따라 응답자의 부모 부양 의식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모든 문항에서 여학생의 부모 부양 의식이 남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남녀간 차이가 컸던 문항들을 요약하면, '부모님의 병환시 밤새워 간호하거나 수발을 든다', '좋아하는 음식을 사 드시도록 용돈을 드리거나, 의복 구입, 취미 생활 등 일상 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해 드린다', '부모님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자주 시간을 내어 말동무해 드린다' 등이다. 이 결과에서 드러나는 특징은 시간과 노동력이 많이 요구되는 대인 수발은 전형적으로 여성의 몫으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외출시 운전해 해 드리거나 집안을 보수하는 등의 비일상적 도움은 남성이 다른 활동에 비해 참여를 좀 더 하지만, 매일의 식사 준비나 병간호 등은 전적으로 여



성이 더 많이 한다는 연구(Horowitz, 1985)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또한 딸이 아들보다, 직장인 여성이 직장인 남성보다, 부양 행동에 소요하는 시간이 더 많았던 것으로 보고한 연구(Neal, Ingersoll-Dayton, & Starrels, 1997; Stoller, 1990)와 같이 부양 의식에 있어서도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하는 문항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점수가 더 높았다.

## 2. 부모와의 애착·갈등 정도와 부모 부양 의식과의 관계

### 1) 전반적인 부모 부양 의식과의 관계

부모 부양 의식을 설명하는 변인을 파악하기 위한 선행 과정으로 부모와의 애착 정도 및 갈등 정도와 부모 부양 의식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남녀 대학생 모두 부모와 애착이 강할수록 부모 부양 의식이 높았으며, 부모와의 갈등이 심할수록 부모 부양 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와의 정서적 관계에서 자녀가 부모와 긍정적 관계를 형성할수록 부모 부양에 대해서도 적극적이며, 관계가 부정적일수록 부모 부양에 소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2) 부모 부양 의식 하위 범주별 관계

부양 의식을 구성하는 하위 범주와 부모와의 정서적 관계에서 애착 정도는 부양 의식 중 정서적 지원과 정적 관계가 있었으나, 갈등 정도와는 부적 관계가 있었다. 반면 갈등 정도는 경제적 지원이나 서비스적 지원과 보다 정적 관계가 있었다.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할수록, 부모 부양에 있어서 다른 어느 지원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는 정서적 지원에 많이 개입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는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관여보다는 다소 형식적이고 표면적인 부분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3. 부모 부양 의식을 설명하는 변인

다음으로 부모 부양 의식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모 부양 의식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인은 남녀 대학생 모두 부모와의 애착 정도였다. 즉, 부모와 애착이 강할수록, 부모 부양 의식이 높았는데, 이 변인들은 남자 대학생의 부모 부양 의식의 40.7%를, 여자 대학생들의 부모 부양 의식의 20.8%를 설명하였다. 또한 남자 대학생의 경우,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도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나 조부모와 동거한 경험이 없는 남자 대학생의 부모 부양 의식이 더 높았다.

### 1) 부모와의 애착 정도

부양 의식을 설명하는 변인으로서 부모와의 애착 정도가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는데, 애착과 갈등 중에서도 애착이 장래의 부양 행동(Cicirelli, 1983)과 도움 제공(Thompson & Walker, 1984)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생애 초기에 어머니와 영아간에 형성된 애착 관계는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되며, 성인기의 애착 행동은 상징적 애착 체계의 발전에 의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물리적인 거리에 상관없이 애착 대상에 대한 근접성과 접촉이 유지될 수 있다. 전화 통화나 방문, 편지 쓰기 등은 성인기 애착 행동의 대표적인 예로, 본 연구에서도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대학생들의 부모 방문 횟수는 '2-3개월에 한번'(24.7%), '방학기간'(21.2%), '월 1회'(20.0%) 등 비교적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동거서 전화 횟수는 '주 2-3회'(45.9%), '주 1회'(25.9%)로 방문 횟수보다 훨씬 상호 작용의 빈도가 높았다. 즉, 대학생들은 전화나 방문을 통해서 부단한 애착 행동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애정적 유대는 거리에 상관없이 유지된다는 Moss와 동료들(1985)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와 같은 애착 행동은 현재의 애착 관계를 유지하는 기능뿐 아니라 연로한 부모에 대한 성인 자녀의 부양 행동으로 확대될 수 있다. 현재의 애착 행동과 장래의 부양 행동이 매우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인 Cicirelli(1983)의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인기의 보호적 행동은 부모가 질병이나 빈곤에 의해 위협받게 되면 연로한 부모의 생존을 유지하고 정서적 유대를 보존하기 위함이다. 결과적으로 높은 부양 의식을 유발하도록 한다.

따라서 부모와의 애착이 강할수록 부모 부양 의식이 높은 이유로 다음과 같은 동기를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애착 대상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정서적인 지원을 받고 싶은 바램에서이다. 영아기에 어머니를 안전 기지(secure base)로 삼아 정서적 안정과 탐색 활동을 했던 것과 같이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를 심리적인 위안처로 이용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성인기에는 부모를 대체할 다양한 애착 대상이 존재하고, 부모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녀에게 베풀 수 있는 자원은 감소하나 부모만큼 자녀에게 무한정의 정서적인 지원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은 많지 않다. 따라서 자녀는 끊임없는 정서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의 존재가 연장되어야 하므로 부모 부양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다.

둘째, 내적 실행 모델의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자신과 외부 세계, 자신에게 중요한 인물에 대해 긍정적인 내적 실행 모델을 발달시킨 개인은 이를 토대로 행동의 방향과 경험의 평가에 대한 체계적인 규칙을 갖게 되고 상징적 애착을 형성하게 된다. 이들은 자아에 대해 긍정적이며, 타인에 대한 불안과 적개심이 적고, 대인 관계의 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장휘숙, 2002; Collins, 1996). 부모와의 관계도 일종의 대인 관계이므로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한 경우 부양 상황에 대해서도 적응하기 용이하며 긍정적일 수 있다.

셋째, 약자에 대한 보호는 인간의 본능적인 태도이기 때문이다. Bowlby(1969)는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애착은 종족의 생존과 번식을 위한 하나의 기제라고 하였다. 생애 초기에는 자녀가 미약한 존재이므로 부모에게 보호를 받지만 생애 후기에는 성인 자녀가 의존적인 노부모를 보호함으로써 가족 체계가 유지

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온 자녀는 자발적으로 부모 부양에 참여하게 된다.

## 2)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 유무

부모와의 애착 정도 외에 남자 대학생의 경우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 유무가 설명력이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조부모와 동거한 경험이 없는 남자 대학생의 부모 부양 의식이 높았다. 부모 노후의 책임 의식에 관한 연구(서병숙, 1986)에서 조부모와 함께 산 경험과 부모 부양의 책임 의식간에 상관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하였듯이, 조부모와 동거한 경험이 있다고 해서 부양 의식이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조부모와 동거한 경험이 없는 경우 부양 의식이 높은 이유로 첫째, 사회적 기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은 남성에게 있다는 사고가 아직까지는 팽배하다. 남성은 성장하면서 부양에 대한 의무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으나 본인이 실제 조부모와 동거한 경험이 없을 경우, 이러한 규범에 대해 의구심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부모는 부모를 모시고 살지 않았지만 자신은 부모를 모심으로 해서 아들이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현실감이 결여된 이상화된 신념을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Brody, Johnsen과 Fulcomer(1984)에 따르면, 성인 초기, 중년기, 노년기로 구성된 삼세대 가족의 여성에게 부모 동거 선호에 대해 조사한 결과, 노년층과 중년층 여성은 가족과 가까이 사는 것은 좋아하지 않았다. 반면에 손녀세대(17-44세)는 대다수가 동거를 희망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대해 노인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평소 이들이 가지고 있던 부모 부양에 대한 이상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하였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기 때문에 위의 결과를 남성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남자 대학생 역시 조부모 동거라는 체험하지 못한 생활 사건에 대해 이상화된 신념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이유는 조부모와 동거한 경험이 있는 남학생들은 조부모와 동거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조부모와 함께 살면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나, 사고 방식이나 생활 양식, 여가 및 사회 생활, 금전적인 부분 등에 대한 문제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향후 부모 부양에 대한 생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이 변인은 부양 의식의 하위 범주별 회귀 분석 중 정서적 지원에서 유의한 설명력을 보였는데 동거 경험이 있는 경우 세대차나 감정 표현 등 문화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불편함을 느꼈을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조부모와 동거한 경험이 없는 남학생의 수치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부모 부양 의식에 대한 재개념화를 위해 장래 주

부양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부모 부양 의식이란 '부모가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처하게 될 경우, 정기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행동에 대한 계획이나 의지'로 구체적인 행동 계획과 규범적인 의식 상태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부모와의 정서적 관계, 즉, 애착 정도와 갈등 정도 중 애착 정도가 부모 부양 의식의 설명 변인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는 자녀가 부모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수록 부모 부양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부양 의식의 하위 범주별 관계에서도 애착 정도는 정서적 지원과, 갈등 정도는 경제적 지원이나 서비스적 지원과 보다 관련이 있었다. 즉, 부모와 관계가 원만할 경우 세심한 배려를 기초로 하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지원을 많이 하며,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소 형식적이고 지원에 관여한다고 할 수 있다.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본 연구 대상자들은 장남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과는 달리 부모 부양의 책임이 '아들과 딸', '능력있는 자녀'의 순으로 있다고 응답하여 부양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부양 책임을 장남을 위주로 한 남성에게만 전가하는 것에서 탈피하는 것일 뿐 아니라 부양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여성도 책임을 나눠 가질 의향이 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보다 부모 부양 의식이 더 높았던 점을 감안할 때 부계 중심의 부양 외에 모계 중심의 부양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대안에 남성들도 배우자의 부모 부양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개방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요구된다.

또한 고령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노년기에 대한 교육 과정을 개발하여 일반인에게 보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 유무에 따라 부모 부양 의식이 상이하게 나타난 것은 노년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노년과의 자연스런 접촉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자원 봉사 활동 등의 노년기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세대간의 원만한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학생 당사자들로 하여금 노년에 대비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한편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로 인한 자녀 양육 문제의 심각성은 많이 언급되어 왔으나, 노인 부양의 문제는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취업한 기혼 여성은 자녀 양육과 가사 노동에 대한 이중고를 겪어 왔는데 앞으로 노인 부양까지 담당하게 되면 더욱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불가피하게 어떠한 형태로든 남성의 개입은 증가될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의 융통성 있는 근무 일정, 재택 근무 등 근무지 선택, 휴가 및 병가 제도의 다양화 등 근로 현장에서의 협조와 남성 자신의 변화가 요구된다.

끝으로 사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노인 복지 정책은 '先가족 보호 後사회 보장'이었다. 즉, 전통적 의미의 경로 효친 사상을 고양하여 노인 문제를 가족내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 공적 부양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노인을 부양하는 자녀와 가족 지원 정책을 운용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 공제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의료 보험의 수혜 범위를 저소득층과 만성 질환에까지 넓혀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치매노인을 위한 주간 보호 센터의 프로그램과 같은 지역 사회의 공공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인 복지에 대한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척도의 문제로 부양 의식에 관한 척도는 대부분 성역할이 고정되어 남성의 영역과 여성의 영역으로 양분된 경우가 많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남녀의 역할을 적절히 반영한 척도의 개발이 요구된다.

둘째, 부와 모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동시에 부모와의 관계를 조사했기 때문에 부와 모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매우 상이한 경우 각각의 관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자녀와 부모의 성에 따른 다양한 조합을 통해 관계를 확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 접수일 : 2004년 02월 17일
- 심사일 : 2004년 03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4년 06월 03일

【참 고 문 헌】

김경신(1998). 가족 가치관의 세대별 비교 연구- 노년, 중년, 청소년 세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10), 145-160.  
 김태현(1982). **한국에 있어서의 노인 부양에 관한 연구: 가족 부양의 실태와 부양 만족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서병숙(1986). 부모 노후의 책임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6, 101-120.  
 송현애(1986). **부양을 중심으로 한 노모-성인 자녀 관계에 대한 조사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신수진(1993). **성인 초기 자녀의 부모 부양 의식에 관한 연구- 사회교환론과 상호적 상징작용론적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유계숙(1998). 전 생애를 통하여 본 부모-자녀 애착에 관한 이론적 쟁점. **한국가족관계학회지**, 3(1), 1-21.  
 윤성은(2002). **부양지원 경험의 보상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은경(1999). 대학생의 가족주의 가치관과 부모 노후의 부양 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1), 45-65.  
 이희자·김영미(1996). 청소년의 부모 부양 의식과 중년기 부모의 노후 준비도. **대한가정학회지**, 34(2), 117-128.  
 임인혜(1987). **한국 청소년의 노인 부양 의식에 관한 연구-서울 시내 일부 고등학생 및 대학생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임춘희(1988). **분거한 도시 장남 부부의 부양 의식 유형: 세대 간 유대 관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장휘숙(2002). 청년 후기의 부모에 대한 애착, 분리-개별화 및 심리 사회적 적응. **한국심리학회지**, 15(1), 101-121.  
 최정혜(1992). **노부모가 지각하는 성인 자녀와의 결속도 및 갈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통계청(2004). **한국의 사회 지표**.  
 한은주·최배영(1997).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에서 본 부모 부양 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2), 373-383.  
 홍달아기(1998). 노부모가 지각한 성인 자녀에 대한 감정과 교류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12), 115-127.  
 허훈(1988). **한국 대학생의 노부모에 관한 가족 부양 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Bretherton, I.(1995). A communication perspective on attachment relationships and internal working models. In E. Waters, B. E. Vaughn, G. Posada & K. Kondo-Ikemura (Eds.). *Caregiving, Cultural, and Cognitive Perspectives on Secure-base Behavior and Working Models: New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60, 310-329),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Brody, E. M.(1985). Parent care as a normative family stress. *The Gerontologist*, 25(1), 19-29.  
 Brody, E. M., Johnsen, P. T., Fulcomer, M. C. & Lang, A. M. (1983). Women's changing roles and help to elderly parents: Attitudes of three generations of women. *Journal of Gerontology*, 38(5), 597-607.  
 Brody, E. M., Johnsen, P. T. & Fulcomer, M. C.(1984). What should adult children do for elderly parents and opinions and preferences of three generations of women. *Journal of Gerontology*, 39(6), 736-746.  
 Bowlby, J.(1969). Attachment and loss. In D. R. Shaffer (Ed.) (2000).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104-134), Wadsworth.  
 Cantor, M. (1975). Life space and the social support system of the inner city elderly of New York. *The Gerontologist*, 15(1), 23-27.  
 Chodorow, N. J.(1989). Gender, relation, and difference in psychoanalytic perspective. In N. J. Chodorow (Ed.).

- Feminism and Psychoanalytic Theory* 99-113), Yale University Press.
- Cicirelli, V. G.(1983). Adult children's attachment and helping behaviors to elderly parents: A path model.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4), 815-825.
- Cicirelli, V. G.(2000). An examination of the trajectory of the adult child's caregiving for an elderly parent. *Family Relations*, 49(2), 169-175.
- Clarke, E. J., Preston, M., Raskin, J. & Bengtson, V. L.(1999). Types of conflicts and tensions between older parents and adult children. *The Gerontologist*, 39(3), 261-270.
- Collins, N. L.(1996). Working models of attachment: Implications for explanation, emotion, and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4), 810-832.
- Dellmann-Jenkins, M., Blankemeyer, M. & Pinkard, O.(2000). Young adult children and grandchildren in primary caregiver roles to older relatives and their services needs. *Family Relations*, 49(2), 177-186.
- Hareven, T. K.(1995). Historical perspectives on the family and aging. In R. Blieszner & V. H. Bedford (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Family* (13-31), Westport, CT: Greenwood Press.
- Horowitz, A.(1985). Sons and daughters as caregivers to older parents: Differences in role performance and consequences. *The Gerontologist*, 25(6), 612-617.
- Moss, M. S., Moss, S. Z. & Moles, E. L.(1985). The quality of relationships between elderly parents and their out-of-town children. *The Gerontologist*, 25(2), 134-140.
- Neal, M. B., Ingersoll-Dayton, B. & Starrels, M.(1997). Gender and relationship differences in caregiving patterns and consequences among employed caregivers. *The Gerontologist*, 37(6), 804-816.
- Pruchno, R. A., Peters, N. D., Kleban, M. H. & Burant, C. J. (1994). Attachment among adult children and their institutionalized parents. *Journal of Gerontology*, 49(5), 209-218.
- Seelbach, W. C.(1978) Correlates of aged parents' filial responsibility expectation and realization. *The Family Coordinator*, 27, 341-350.
- Shanas, E.(1979a). Social myth as hypothesis: The case of the family relations of old people. *The Gerontologist*, 19(1), 3-9.
- Shanas, E.(1979b). The family as a social support system in old age. *The Gerontologist*, 19(2), 169-174.
- Silverstein, M., Parrott, T. M. & Bengtson, V. L.(1995). Factors that dispose middle-aged sons and daughters to provide social support to older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2), 465-475.
- Solde, B. J. & Myllyluoma, L.(1983). Caregivers who live with dependent elderly. *The Gerontologist*, 23(6), 605-611.
- Spitze, G. & Logan, J.(1990). Sons, daughters, and intergenerational soci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2), 420-430.
- Stoller, E. P.(1990). Males as helpers: The role of sons, relatives, and friends. *The Gerontologist*, 30(2), 228-235.
- Suitor, J. J. & Pillemer, K.(1991). Family conflict when children and elderly parents share a home. In K. Pillemer & K. McCartney (Eds.). *Parent-Child Relations throughout Life* (179-199),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Sung, K. T.(1992). Motivations for parent care: The case of filial children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34(2), 109-124.
- Sung, K. T.(1995). Measures and dimensions of filial piety in Korea. *The Gerontologist*, 35(2), 240-247.
- Thompson, R. A. & Lamb, M. E.(1986). Infant-mother attachment: New directions for theory and research. In P. Batler, D. Featherman, & R. Lerner (Eds.). *Life Span Development and Behavior*(7, 1-41),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Thompson, L. & Walker, A. J.(1984). Mothers and daughters: Aid patterns and attach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2), 313-322.
- Uhlenberg, P.(1996). The burden of aging: A theoretic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shifting balance of caregiving and care receiving as cohort age. *The Gerontologist*, 36(6), 761-767.
- Ward, R. A. & Spitze, G.(1992). Consequences of parent-adult child coresidence. *Journal of Family Issues*, 13(4), 553-572.
- Weiss, R. S.(1982). Attachment in adult life. In C. M. Parkes & J. Stevenson-Hinde (Eds.). *The Place Attachment in Human Behavior* (171-184), New York: Basic Books.

<부록 1> 독립 변인들간의 상호 상관계수

| 변 인        | (1)   | (2)   | (3)    | (4)    |
|------------|-------|-------|--------|--------|
| (1) 출생 순위  | 1.000 | -.165 | .180   | -.243* |
| (2) 부모 동거  | -.027 | 1.000 | -.021  | .185   |
| (3) 조부모 동거 | .208* | .031  | 1.000  | -.025  |
| (4) 애착 정도  | -.048 | -.012 | -.239* | 1.000  |

\*  $p < .05$  \*\*  $p < .01$

※ 대각선을 중심으로 우측 상단은 남자 대학생들, 좌측 하단은 여자 대학생의 수치임.